

지역사회탁아소

제 6 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엄마, 아빠 함께 만든 탁아복지,
밝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



일시/ 1993년 10월 17일(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국민대학교

☆ 주최/ 지역사회탁아소 어머니들

☆ 주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6)

서울경인지역 탁아소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 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당 여성국, 민주자유당 여성국

너희에게

장정숙

(부산 우리아가동산 어린이집 교사)

그래

너희는 우리 삶의 버팀목이야

아들놈땀에 산다고

술 취해 허느적이던 한 아빠를 기억합니다.

우리 손자놈 잘 봐주어 고맙다고

파출부 나가 번 돈 만원

허리굽혀 내 손에 쥐어주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허깨물고 꼬꾸라져 죽을래도

너희 때문에 살았노라고 눈물 찍어내던 우리 엄마
도 기억합니다.

세살박이 녀석이 엮어달라 칭얼거리자

‘글카른 선생님 허리 아야해’

제 등 내밀던 네살박이 눈 맑은 우리 아이.

‘선생님도 췌’ 잉잉 장난 눈물에

제 입 속꺼 반잘라 내미는

우리아이들의 그 예쁜.

그래,

너희는 우리의 꿈이야.

이 팍팍하고 견디기 모진 세상살이

하루에 열 번쯤 절망하고

하루에 열 번쯤은 대충 살아버리고 싶을 때

“선생님! 나무에서 잠자리가 울어요.”

뻥뻥거리는 도시의 가로수에서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는 너희.

너희는 사랑스럽지.

옷에 똥 오줌을 싸버려도

꼬집고 깨물고 침을 뱉뱉 뱉어도

‘야 빵구야’ 너희가 아는 유일한 욕지거리로 성을

내도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천사지.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삶을 새로 살고

너희로 하여금 꿈을 다시 꾸고

너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눈단다.

무럭무럭 자라렴

이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새날, 새조국의 힘찬 일꾼으로!!

제6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짜 임 세

참가 가족	2
개회사	3
한 아픔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어머니큰잔치 / 강귀숙	
축사	4
풍성한 어머니큰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 최현숙	
준비사	5
모두가 한 식구되어 / 남미영	
오늘의 행사	6
전통혼례에 관하여	9
가장행렬	12
‘여성과 아이키우기’	
어머니큰잔치의 발자취를 찾아서	17
국민대학교 시설 안내도	20
함께 부르는 노래	21

< 제 6 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참가가족 >

북부지역위원회 소속 탁아소 >

어린이 사랑방, 밝은 어린이집, 둥근나라 어린이방, 햇님 어린이집, 햇살 놀이방

동부 // >

개나리 동산, 슬기 아기방, 오손 도손 애기방

중부 // >

개구장이 어린이방, 해송 아기 등지, 또래 놀이방

봉천 // >

꽃동네 놀이방, 봉천동 애기방, 씹씹이 놀이방

구로 // >

구로 어린이집, 새터 어린이집, 튼튼이 어린이집, 온누리 어린이집, 새싹 놀이방, 한울 탁아방, 둘다섯 탁아방

안산 // >

오손 도손 애기방, 진달래 동산 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네

성남 // >

푸른솔 애기방, 새날 아기마을, 하늘 어린이집, 동방 어린이집

부천 // >

아이사랑 어린이집, 튼튼이 어린이집, 한울 놀이방, 새롬 어린이집

안양 // >

다람쥐 놀이방, 한무리 어린이집

인천 // >

꿀목 어린이집, 나눔의 집, 민들레의 집, 새싹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우리동네 어린이집,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세쌍둥이 어린이집, 엄마방 어린이집, 샘터 선교원 어린이집,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소속 탁아소

수원 // >

꿈동산 어린이집, 아이벳 놀이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전국 80여개 탁아소가

행정단위별로 전국 17개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아름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어머니큰잔치 !!



강귀숙

(중부지역 토레 놀이방 자모회장)

복 받은 계절 이 가을에 열린 어머니큰잔치에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살아가는 처지가 각각 다른 우리 어머니들을 이렇게 모여들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크게 자라 장차 이 나라의 건강한 주인이 될 우리들의 귀여운 아가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지요. 그 강한 어머니들이 뽄뽄 뭉쳐 더욱 강한 어머니가 되어봅시다. 그리고 그 힘을 서로 서로 나누는 너그러움을 가져옵시다.

이렇게 큰 잔치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 모이신 여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오늘 모인 뜻이 헛되지 않게 한아름의 꿈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힘있는 이웃이 많으니까요.

풍성한 어머니 큰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 현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어머니들의 웃음소리만큼이나 푸짐한 가을의 축제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해를 거듭해 가면서 내용이 알차지고 세련되어지는 어머니큰잔치는 올해의 경우 새로이 등장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것은 바로 곳곳에 헤어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에 단 한번 모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뛰고 같이 웃고 함께 열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잔치! 그것은 말그대로 모두가 모여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고에 뭉쳐진 응어리를 마음껏 가을 하늘속으로 풀어 버리고 숨겨진 기량을 눈치볼 필요없이 자신을 모두에게 내놓는 날 그것이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모두를 만나게 하는 장!

우리의 기량을 뽐내는 장!

우리의 억척스러움과 성실함을 과시하는 장!

흥겨워야 하고 또한 흥겨움을 나눠주는 장! 그래서 우리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장!

잔치를 벌입니다. 맘껏 뛰놀고 한껏 목청높여 흥겨운 잔치를 만듭시다. 그래서 모두의 만남을 기뻐하고 다음 만남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오늘 하루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한 식구되어

신명나는 잔치를 만들기 위해



남미영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구로지역 새터어린이집 원장, 어머니큰잔치 준비위원장)

푸르디 푸른 가을하늘과 유유히 떠도는 흰구름을 바라보며 올해도 지탁연 가족들은 어머니 큰잔치를 만들기 위해 이 곳 북악산 기슭에 모였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바쁜 직장일과 언제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집안일 속에서도 그동안 숨겨놓았던 솜씨들을 갈고 닦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부모님들과 아이들 보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 준비모임에 참석해 열심을 내주신 선생님들, 항상 굿은일 도맡아 하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몫인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특히 한쌍의 부부가 지탁연 온 가족의 축하속에서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정말 뜻깊은 일이고,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노래자랑은 예선을 거쳐 올라온 지역, 성악가를 모셔다가 연습하는 지역 등 열띤 경쟁속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다른 지역으로, 다른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루 모두가 한 식구 되어 신명나는 잔치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 잔치 자리가 직장으로, 탁아소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놀이 / 진행: 국민대학교 사범대 풍물패 '울림사위'

11:00~11:30

개회식

1. 깃발입장 및 소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각 지역위원회와 소속 탁아소, 내빈소개

2. 대회사 / 강 귀숙 (중부지역 또래 놀이방 자모회장)

3. 내빈소개

4. 축사 / 최 현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5. 축가 / 각 지역 교사 일동

11:30~12:30

신 명철, 박 경주 부부 혼례식

12:30 ~1:30

점심시간

1:30~2:40

엄마, 아빠 노래자랑

1. 남행열차 (봉천, 봉천동 애기방 자모 2인)

2. 개구리 노래시리즈 (부천, 아이사랑, 튼튼이 어린이집 자모)

3. 사는게 무엇인지 (안산, 안산지역위원회 자모들)

4. 동지선달 (동부, 개나리동산 어린이집 자부)

5. 아빠의 청춘 (구로, 구로지역위원회 공동)

6. 향수 (성남, 하늘어린이집 자부)

7. 일이 필요해 (인천, 엄마방 어린이집 자모들)

8. 비처럼 음악처럼 (북부, 둥근나라 어린이방 자부)

2:40 ~ 3:30 '여성과 아이 키우기' 가장행렬

인천-북부-봉천-동부-구로-성남-수원-부천-중부-안산지역 순으로
발표합니다.

3:30 ~ 4:30 대동놀이

삐삐 공동체조-ox게임-짜짓기-줄다리기-박터트리기

4:30 ~ 5:00 폐회식

엄마 아빠 함께 만든 탁아복지
밝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

● 기획전시 ●

♡ 장소: 노천극장 입구

♡ 내용: 보육사업의 결과 속
- 영유아보육법 제.개정경과
반쪽이의 육아일기 중에서

● 아동행사 ●

서울 인형극회 (SEOUL Theatre) 인형극 공연

청개구리, 베고픈 애벌레

♡ 공연시간: 1회> 오후 2시: 서울지역 탁아소 아동
2회> 오후 3시: 경인지역 탁아소 아동
♡ 공연장소: 사범대 지하강당

연출: 안정희

출연: 김춘수, 박경래, 김종문

연혁:

1961 창단 / 1961~1964 KBS-TV 출연 / 1968, 1969 국민학교 교사 인형극 강습 (문교부 주최) / 1976~1982 교육방송 TV출연 / 1980 유니마 총회 한국 대표참석 (미국 워싱턴) / 1984 인형극 상설극장 개관 (공간 소극장, 샘터 파랑새 극장) / 1986 아시아 지역 인형극인 대회 참석 / 1988 예술상 수상 (인형극 부문) / 1989 일본순회 공연 / 1989~1991 제 1, 2, 3회 춘천 인형극제 참가 / 1992. 6 일본 규슈슈우 지방 (국제교류) 순회공연 / 1992. 8 일본 아이러브유 인형극 페스티벌 참가 / 1993. 2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공연 / 1993. 8 대전 엑스포 참가

야, 신나는 놀이터

♡ 놀이터: 민주광장

♡ 기차놀이, TV 놀이, 비행기 접기, 홀라후프, 터널 통과하기 등

★ 놀이터앞에 있는 아동행사 본부에 응급약품과 식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쉼터 이용: 학생회관 3층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간식: 아이들 간식용으로 빵과 우유를 마련하여 3시 40분에 나눠드립니다.
아동행사 본부로 오세요.

전통혼례에 관하여

우리는 혼례식하면 흔히들 웨딩드레스를 입는 서양예식을 떠올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혼례가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예식장의 횡포에 휘이기도 하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 예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여한 하객들이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떠밀려가기가 일쑤입니다.

이러한 세태속에서 일생에 단 한번인 혼례식을 혼례식답게 하면서 우리의 것을 되찾고 바른 혼례를 치루자는 노력으로 '전통혼례, 새 민속혼례, 민중 혼례' 등으로 불리우는 혼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른 혼례란 민족의 전통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서양 문화속에 갇혀버린 우리의 혼례 정서를 찾아 그 신명을 풀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혼례란 남녀를 동등한 격으로 섬겨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를 건설하는 공인으로서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유것이든 외래의 것이든, 불공평한 것은 바로 잡아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품새가 돼야 합니다.

바른 혼례란 아울러, 임하는 사람들을 모두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장도에 오르는 혼인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혈과 육이 되어 길을 받쳐주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맙고 반가운 친지와 하객은 하객대로, 이들 모두를 주인으로 모시는 꾸밈새여야 합니다.

좋은 예식이란 또하나, 장소의 제약과 주변의 허례허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식판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호사스럽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신심이 담기는 진지함이 있고 맞대어 어울리는 교감의 마당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뜻들을 새겨서 혼인의 결의와 잔치의 신명이 우러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자리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보금자리를 꾸려왔었던 한 쌍의 부부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가족들 앞에서 보다 힘찬 앞날을 약속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것을 되찾아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주인공 두분에게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일하는 부모님들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장내정리

혼례청 올림 잔치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뜻깊은 혼례가 신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물을 올림으로 혼례의 터를 다지고 혼례 시작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을 자리에 모으고 판을 잡는다.

혼례청 밝힘 양가의 어머니들께서 혼례마당에 불을 밝혀 모두의 배려를 지퍼들이고 불꽃을 올린다. 어둠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밝게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위로 오르는 불기운은 천신을 감화해 들어서 한데 하도록 피하는 것이다.

신랑신부 들어섬 신랑은 물론 신부 또한 마찬가지로 주체인 만큼, 정중하면서도 의연하게 들어와 선다. 예복은, 때때로 실용할 수 있는 민간의 한복으로 차리도록 한다. 각시를 아버지가 남편될 이에게 인도하여 주는 일반 예식의 입장방식은, 지금껏 아버지가 가졌던 딸의 주권을 신랑에게 넘기는 삼종지도가 표현되는 서양예식의 절차이다. 아울러, 신부의 흰 웨딩드레스는 한쪽에만 강요된 순결을 표상하는 것이며, 면사포는 남성을 통해야만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다해서 여자 스스로 하나님을 우러르지 못하도록 가려쥔 기독교 의식의 한조각이다. 한편, 구식의 사모관대와 원삼족두리는 중국과 몽고에서 받은 관복으로써, 백성에게 일시적 허세를 입혀서 코드된 지배논리와 사대습성에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여자 역시 고개를 떨구어 얼굴을 가릴 것이 아니라 의젓하게 스스로 들어와 서는 것이며, 고운 한복을 기꺼이 우리의 예복으로 삼는 것이다.

손씻음 손이야말로 노동을 실현하는 부위이고 이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니, 손은 역동하는 인간의 핵심이 된다. 바로 이러한 손이라는 데를 씻음으로써, 온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본례에 임하는 것이다.

신랑신부 맞절 신랑 신부가 큰 경배를 나눔으로써 내내 공경우애하며 살아갈 다짐을 올리는 것이다. 전래된 것은, 부축을 받은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두번 절하면 신랑은 한번 답배함을 거듭하는 식이다. 이 식은, 중국의 유교례에 따른 유습으로 주종의 예와 다를 바 없으니 남여를 음양의 수효로 그 의미를 다는 것보다 큰절로 대신한다.

하늘에 알림 성스럽고 기쁜 혼례를 하늘에 고하여 만천하에 알린다.

합환주 우선, 술을 서로가 한 번씩 올려서 공대의 예를 갖추고, 이어서 서로의 술을 합하여 나누어 마심으로써 합환의 예에 가름한다. 술은 생명의 원천인 물이라는 자연에 사람의 공이 어울려 숙성된 것이니, 이를 섞어 마심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덕속에서 가를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을 새기는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술을 나누기 앞서서 시자를 통해 술 한잔을 바닥에 돌려서 붓는다. 이것은 스며 내리는 술의 기운으로 땅신을 어울려 들임을 뜻하니, 천지자연과 화해하는 의식의 또 한가지다.

길눈이 말씀 존경하는 분을 모시어 짝 맺음의 축원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래도

록 되새겨 볼 당부의 말을 듣는다.

길눈이란 눈이 밝은 사람을 뜻하며 옛날 동네에서 가장 경륜이 높은 사람을 일컬어 길눈이라 불렀다고 한다.

성혼 선포

인사

축하마당 신랑신부가 생활해 온 노정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춤으로 담기도 하고 축하의 노래를 어울려 들이기도 하여 성혼을 반가이 기린다. 지금까지의 정중한 본례에서, 고마움과 기꺼움이 절로 펴나는 잔치로 넘는 대목이다.

성혼행진

우리네 방앗간

우리네 방앗간은 우리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만들어
올바른 먹거리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엄마들의 맛깔스런 솜씨와 정성으로
생일, 결혼 행사용 각종의 떡과 참기름, 들기름, 돌 김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문한 날짜에 맞춰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수익금의 일부를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아이들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 취급 품목:

참기름 8,500원/ 들기름 4,500원
고추가루 (1근) 6,000원/
즉석구이 돌 김 1,000원
각종 떡

☎ 연락처 : 032)513-9683

● 가장행렬 ●

‘여성과 아이 키우기’

1. 인천지역 탁아소 공동

여자가 가장(?) 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데..

여자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따라서 누구의 씨인줄 모를 아이는 당연히 여자의 아이가 되고, 여자 중심의 혈통을 잇게 되었다.

2. 북부 지역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내 것에 (사유재산 개념)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역사는 일대 혼란을 겪게 되었으니,

아, 여기서부터 있는자와 없는 자, 힘센 자와 약한 자, 여자와 남자, 인간 차별의 역사, 억압의 역사, 슬프고도 분노스런 역사가 시작되었다.

3. 봉천 지역

과거에 우리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박아닌 구박을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이기 때문에 찬밥이 되고,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 ‘살림밀천’이 되기 위해서 가사일을 배우고, 좀 더 철이 들면 시집가기 바쁘다.

시집가서는 집안일, 밭일, 아들 낳으랴, 마음 놓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인내’ 이것이 여자의 미덕으로 취급되었다.

4. 동부 지역

우리 민족사에 가장 불행했던 시절 일제 치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토지 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전쟁물자를 조달해야 한다며 낫순가락, 제기 심지어 이빨까지 뽑아간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살림 걱정

술로 시름을 달래던 중 옆에 있던 딸을 보며 눈을 번쩍이는 가난한 농부.

술도 마셨겠다, 에이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모두 앉아 굶느니 잘 사는 일본 사람 후처라도 들어 앉으면

너도 먹는 건 기름질 것이고 남은 식구들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하며 딸을 팔아 먹는다.

땅도 빼앗기고 더 이상 농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자 남정네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성들도 일을 찾아 돈벌이를 찾아 서울로 대도시로 가서 행상일, 방직공장일 등을 한다.

가축들이나 먹는 음식을 먹으며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도 일본 사람들에 반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우리 노동자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참아서도 안된다며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당당히 일어난 우리의 노동자들

아!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비록 우리들 손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쁘기 그지 없는 우리 민족

해방의 춤과 태극기의 물결

그리고 끝이은 한국 전쟁이 웬말이나.

남정네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 죽거나 불구가 되어

돌아오니 누가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까나!

민족 재건과 가족부양 책임위에 굳건한 의지, 결연한 자세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로세.

5. 구로 지역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끝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맙시다. 잘 살 때까지 군소리 말고, 일은 열심히 하되 조금씩만 가져갑시다. 더 잘 살게 되면 그때 넉넉히 나눠가칩시다.”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모자라네, 애고애고 혼자 벌어서는 못살겠다. 너도 함께 벌여보자”

“여러분은 자랑스런 산업역군입니다”

“이제 여자도 집에만 있다 시집가지 말고, 공장으로 오십시오. 돈도 벌고, 선진 한국의 자랑스런 밑거름이 돼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공장이 부른다”

6. 성남 지역

이렇게 하여 일하러 나갔더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고 내가 뭘 슈퍼우먼 인가?

아이는 아이대로,

일은 일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옛날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이 일만 하나 더 늘었네

예고, 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7. 수원 지역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아이 바쁘게 들쳐업고 탁아소에 갔다, 일하러 갔다.

집에 와보니,

쌓여있는 설것이, 빨래감, 저녁준비까지 해야하네.

퇴근한 남편은 상전이나 되는 듯이 대자로 누워서 신문, TV만 보고.

“아이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나?”

“빨래만 좀 갖어주면 좋을 텐데”

“누워서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다니”

아이는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징징거리네.

며칠전 추석때 시댁에 갔더니,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하는 은근한 시어머니의 눈초리

하나도 힘든데, 하나 더 낳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8. 부천 지역

혼자 벌어서 언제 집장만 하고 애들 교육시키겠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지.

막상 일하라고 일터로 떠밀렸지만 우리같이 기술없고 백없는 엄마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 공장일 (봉제공장)

혼자벌어 못살겠다. 봉제공장에서 미싱일하다보니

살림은 늘었지만 몸이 너무 고단하다.

코를 풀면 실밥이 나오질 않나

어찌다 쉬는 날엔 안 아픈 곳 없다.

그래도 이 고생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만 있다면

* 파출부

아휴 그나마 밥하고 빨래하는 것 신물나도록 해봤지만

파출부라도 해야지 뭐 그런데 솔직히 누구는 돈 좀 있다고 파출부 쓰고

우리는 우리집 청소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선 남의 집안일을 하고 다니다니 내 신세야.

* 세일직 엄마

시간도 얼마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해서 버는 것이다.

자유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젠 더이상 손벌릴 천척도 없고 도둑 취급받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지겹다.

9. 중부지역

『만돌이네 집』

-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 피아노 학원 다녀와야지
- 이제 영어공부하고 와야지
- 자, 이제 마지막이다. 글자공부하고 와라
- 애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
- 아무말 말아,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는 것 몰라. 이 아저씨 좀 봐, 열심히 배워야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뽕이네 집』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란다.
너희들 잘 키울래니 나도 가랭이 찢어지겠다.
눈곱 못 뽀 너를 아침에 밥도 못먹여
들쳐 업고, 탁아소에 떨구고
허겁지겁 회사에 가면, 하루종일 일을 한다.
교육과 환경을 내게 넉넉히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도 상하는 구나.
미안하다.
퇴근해서 너의 밝은 웃음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가신다.
집에 가면 엄마는 쉬고 싶다.
너랑만 놀고도 싶다.
그런데 집에 가면 쌓인 집안일에, 괜히 네게 소리만 지르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하나 제대로 만들 힘이 없구나.

10. 안산지역

이 엄마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구나.
또 이 엄마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구나.
집안일과 너를 키우는 일을 가족들과 사회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단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이기고 글자를 누구보다 빨리 알기 보다는
친구를 사랑할 줄 알고, 작은 것도 나눠 가질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란다.
엄마는 네가 즐거운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을 통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너를 키우고 싶다.
이것이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지?
내 옆에 있는
아빠와 엄마들, 선생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엄마는 자신이 있단다.
큰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운동장처럼 넓은 마루와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사이좋게 뛰어 놀 너희들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며,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엄마, 아빠 함께 만든 탁아복지, 밝게 크는 우리 아이들 만세!”



어머니 큰잔치의 발자취를 찾아서

-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들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 탁아소들이 벌이는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어머니 큰잔치는 탁아소 자모, 자부, 교사, 아이, 후원인, 자원활동가(자원봉사자) 등이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매 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열린다.

본 행사는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에게 보호·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함께 애써 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 탁아소의 활동 성과를 많은 자모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것으로 하는 한편,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 육아 문제의 근원에 대해 알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주인으로서 다짐하는 자리로 자리잡아왔다.

본 행사는 보통 8월부터 본 회의 각 지역위원회별로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기획과 준비를 한다. 각 지역위원회는 자모,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준비모임이 이뤄지며 중앙차원에서는 각 지역의 교사대표와 자원활동가 등으로 중앙집행모임을 구성하여 제반 준비를 한다.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어머니큰잔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회 어머니 큰잔치

- 일하는 어머니들의 한마당

주제: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쉬고 싶다.

일시: 1988.11.6 오후 2시~

장소: 영등포 성문밖교회

주최: 새터어린이방, 보람의 집, 돌샘 어린이집, 까치동산, 산돌 공부방

그외 각 지역 탁아소와 공부방

주관: 기독교여민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후원: 한국여성단체 연합/ 교회여성연합회/ 기장 여신도회 / 여신학자 협의회/ NCC여성위원회/ 감리교 여 교역자회

「지역사회 아동교사회(1985)」에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86)」로 확대 개편된 후 기독교 계통의 탁아소들의 발의로 1988년에 첫 어머니 큰잔치를 마련하였다.

1회는 장기자랑에 참여했던 탁아소들의 이름을 주최에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탁

아소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였다.

주로 일하는 엄마들의 애환과 목소리를 담고 여성들의 2중고, 3중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 연극과 엄마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이루어졌다.

☆ 제 2회 어머니 큰잔치

- 일하는 어머니들의 한마당

주제: 우리는 일하는 엄마, 이 세상에서 최고다!!

일시: 1989. 10.1 오후 1시 ~ 6시

장소: 홍익대학교 체육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어머니들, 공부방연합회 어머니들, 기독교여민회

후원: 감도빈 여성실무자회/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 기장 여신도회/ 도시빈민연구회/ 여성노동자회 선교교육원/ 예장 여교역자회/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위우녀회/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서울·수원지역 탁아소 자원활동가 협의회/ 동양화학 파워크린/ 이삭회/ 다솜회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해서 여성과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도 했고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지역별 경연대회부터 강강수월래까지 잇는 공동체적인 행사로 자리하였다. 2회에서는 탁아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탁아법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하면서 이후 탁아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결의하였다.

♡ 지역사회탁아소

제3회 어머니대회

주제: 엄마 아빠 똘똘 뭉쳐 탁아법 쟁취하자!

일시: 1990.9.23(일)

장소: 건국대 체육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어머니들

주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후원: 한국여성단체 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건국대 총여학생회

3회는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한 어머니들이 벌이는 대회의 성격이 강했는데 독자적인 탁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정부가 실랑이를 벌였던 가운데 열렸다

당시의 상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탁아소 신고조치 (90.9.18)를 거부하면서 탁아 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갖고 해결해야 함을 가두 서명, 가두선전 등을 자모, 교사들이 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탁아문제에 관한 큰 여론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제4회 어머니대회

주제: 함께 꾸리는 탁아소, 함께 만드는 탁아법, 함께 참여하는 탁아행정!

일시: 1991. 10월 13일(일) 오후 2시~5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

주최: 지역사회탁아소 어머니들

주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후원: 한국 여성단체연합,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4회는 전국의 소속 탁아소들이 함께 모였던 것에 반해 각 지역별로 조건과 역량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서울 경인지역 소재 회원 탁아소들이 모였다. 이 대회는 수년간의 탁아입법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영유아보육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들어 개정활동을 활발히 벌이기로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혜화로타리까지 평화대행진을 하였다. 이때부터 야외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해를 거듭하면서 각 지역별로 탁아문제를 주제로 하여 한, 두 달정도 준비하는 지역발표 내용이 큰 공감을 주었다.

◆ 제5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주제: 탁아예산 확보는 엄마, 아빠 단결로!

일시: 1992.10.1(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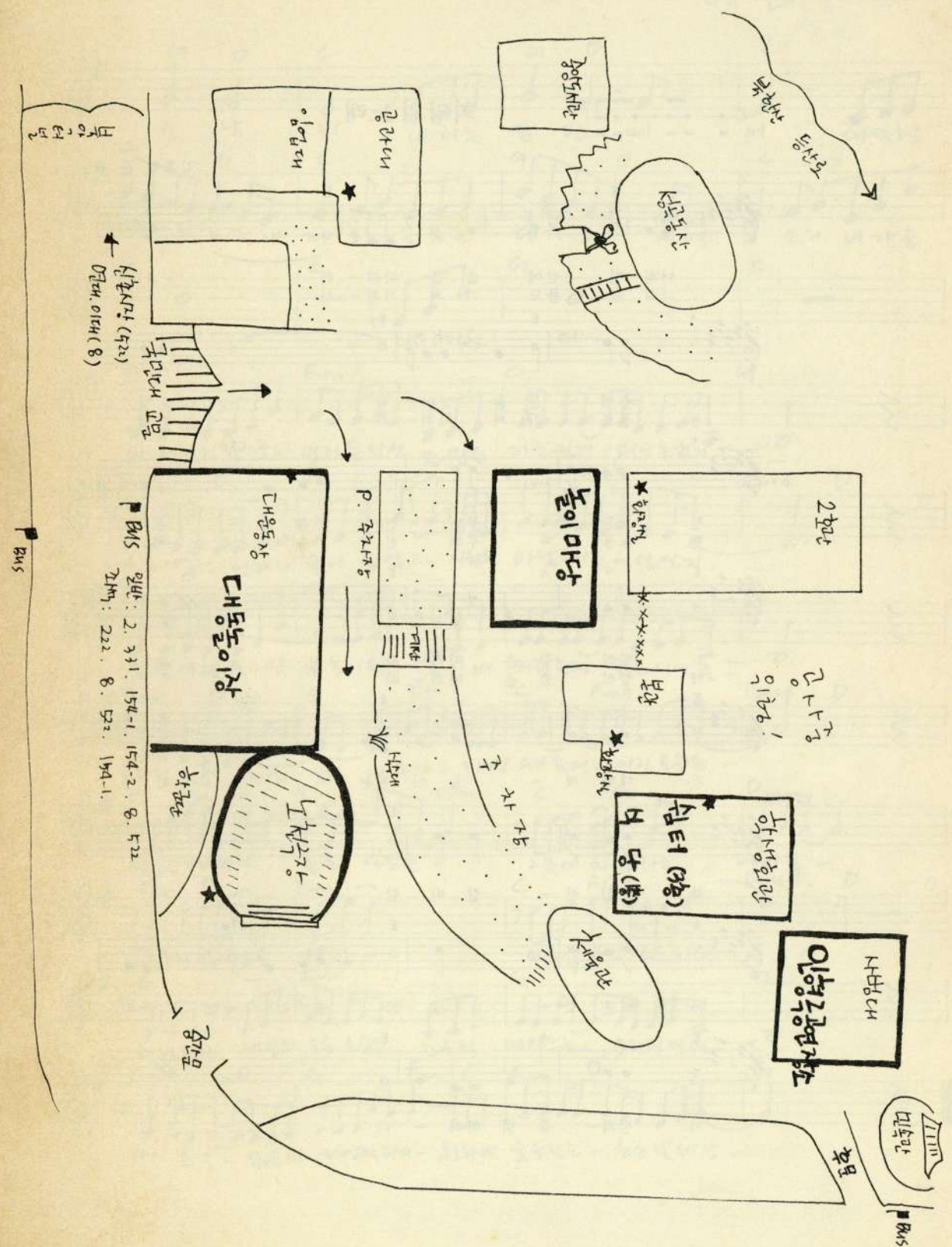
주최: 지역사회탁아소 어머니들

주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경인지역 탁아소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국민대 총여학생회

횃수를 거둬들여 점차로 안정되어 가면서 특히 '아빠들의 작은 운동회'가 열려 탁아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엄마들의 탁아소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생활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공연의 관람과 대동놀이 등으로 탁아소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였다.

5회는 일하는 맛벌이 부부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가족 문화잔치로서의 성격을 명확하며 진행되었다.

□ 국민대학교 시설 안내도



함께 부르는 노래



희망의 노래

김호철 글. 곡

너의 빈 잔에 술을 따라라 - 나의
나의 술 품도 가져가거라 - 나의

마음에 문을 열어라 - 내
마음에 문을 열어라 - 내

힘없는 노동에 - 무너진 가슴여 - 우리
힘없는 노동에 - 무너진 가슴여 -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 우리

저 대하계 - 물아치는 - 더
저 대하계 - 물아치는 - 더

의 쓰라린 - 칼바람 - 지
의 쓰라린 - 칼바람 - 지

더러운 것 - 들쭉 쓸어 - 우리
더러운 것 - 들쭉 쓸어 - 우리

희망의 불박히리 - 라

Fine

DC

노닐비 내리는 날

백연자 글. 가락

노닐비 내리는 날 판에 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 제 마음들 품는 대지-의 - 생명 의 소리 내 가슴

에 내 가슴에

내 어갈작 노닐비 내리는 날은 들판은 가로질러 - 뛰어들어
그곳에는 - 언제나 둘이 있었어 - 사랑한 바람 - 이 불어왔었지

길 옆에 피고 지는 꽃송이들과 종이가 배 띄워놓은 - 맑은 시냇물 -
과함없는 - 아이의 밝은 미소가 - 지내온 우리들의 - 어진 모습 -

햇빛은 가져버려 돌은 빗집들 - 그곳이 자라나는 아이들 -
눈조차 밝게 웃는 세상은 - 마음엔 무언 담을까 -

희망의 세상의 모든 모습 간추려 매아래는 - 우리의 생명 -
다시 봄은 - 입술까지 피어날까 - 환하게 웃을것은 - 눈썹빛 세상 -

딸들아 일어나라

김호철 작

어두웠던 밤 지나 새 벽 이 얼어붙은 땅 봄아 새 학 이
우-리는 이 땅의 노 동 자 역-사의 주 인인 노 동 자

죽어있는 봄은 봄- 찬목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 어 나 라 죽어있는 봄
단아한-벽란봉에 흔들림 수는 없다 딸들아 일 어 나 라 죽어있는 봄

의 노 동 자 로 태 - 어 나 자랑스런 딸로 태 어 나

사랑도 형-애도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봄 새 학 이
고귀한 모습보로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봄 새 학 이

나가자 꾀 부수 자 성 차별 노 동 착 의

동-지아 투 정이 다 - - 여성해방노 동 하

- 사노라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울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민요연구회 글. 곡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들 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 려 왔 구 나 온 나

라 억울려퍼지 는 노래크게 외쳐부르 며

이 제 갈 길 알았노라고 아 -- 아 --

모 두 들 여기 까지 여기모여있 구 나

진짜 노동자 3

김호철 글. 곡

사 나 이 한 평생살아간다 우 리 는 진짜노동자
적 들 이 아 무리짓눌러도 우 리 는 까딱없구나

의 리 화 강다귀로몽쳐진 나는! 너는! 진짜노동자!
전 노 협 깃-발에 하나된 나는! 너는! 진짜노동자!

첫 사 랑 역 는물흘릴땐 그 땀 정 말 철부지였지

괴연 투쟁-에 새산 악안 다 노동 자 새 세 상!

서울에서 평양까지

남 D. 오 B. 합창 C. 울지운수 조재형 윤민석 작곡

서 울-에서- 평 양-까지- 택시요금이란-원 -
본 단-세력- 물 아-내고- -통일만된다-면 -

소 련도가고- 달나라-도가고- 못가는곳없-는- 데
돈 못받아도- 나-는--좋아- 이산가족태우고-갈 려

강 주보다 더가 까운 평-양은왜 못-가
들 아올때 빈차 걸랑 울다죽은내 형제 들

우 리-민족- 우 리-네땅- 평 양만왜 못-가
목 은-편지- 원 혼-이나- 거 두-어 오- 지

경 적을을 이 며 서울에서평 양까 지

꿈 속에라도- 신 명 나게- 달 려-볼 란다 -

- 조개와 노동자

- 바닷가 조개를 하나 집어보면 알맹이도 텅, 마음도 텅
갈매기들에게 모두 다 빼앗겨 생명까지 빼앗겨 텅텅텅
그래서 조개는 그래서 조개는
마음도 텅텅텅 생명도 텅텅텅 모두가 비어서 조개껍데기
- 우리네살림을 들여다보면은 안을 봐도 텅, 밖을 봐도 텅
자본가들에게 모두 다 빼앗겨 생명까지 빼앗겨 텅텅텅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마음도 짹짹 생명도 짹짹 모두가 짹차서 노동해방꾼

꿈이 필요한 세상

백창우 작. 화

이-땅에누 터 금덩이 들은 모두 예쁜 구 슬픔만들 어
아침에-는 미-술 학원 나-예는 - 슬피아도 학원

아이들 이 가지고놀 게 다 나 누어 주 고 루
자-그 에 텔-레비젼 아 본 주한 하 루

아이들에 게물 터중 교과서 들은 모-두종이비행기를 만 들 어
아이들 외-꿈-을 키워주 는거 문 방구가판용탄전차 모 란 심

하늘 가까운 학교 옥 상에 서 다 -나-미 게하 자
놀이터-는 몇개 꿈 잉이지 만 아 무도거기엔없는 거

억어다어며-개 보 다 는 꿈이더 필요 하세 사이 게하 고
유치원-경쟁률 보 다 는 꿈이더 필요 한세 장이 게하 고

일류 대학졸 어자 보 다 는 꿈을 더 소중 하여 기 게 하 자
백원짜리동-전 보 다 는 꿈을 더 소중 하여 기 게 하 자

- 참사랑

바람불어도 눈보라쳐도 그대 당신은 내사랑
거친 손가락 못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참사랑
투쟁속에 우린 만났죠 야윈 얼굴 서로 보듬고
우리 새세상 만들때까지 우리 변치말고 투쟁하자고
그대가 감싸주는 내 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민주 자유당 여성국
- 민주당 여성국
- 강부자 (통일 국민당 국회의원)
- 이해찬 (민주당 국회의원)
- 새싹회 (구로지역 새싹놀이방 졸업생 자모모임). / 30.000원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생회 / 60.000원
- 삼대 한의원 (T. 856-8558) / 50.000원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 50.000원
- 구로 우리네 약국 / 30.000원
-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 아이들 간식용 빵과 우유

- > 무대 도움: 국민대학교 공과대 학생회
- > 포스터 도움: 국민대학교 동아리 그림사랑
- > 풍물 도움: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풍물패 울림사위
- > 춤 도움: 국민대학교 동아리 민속굿 연구회
- > 반주 도움: 국민대학교 동아리 아우성 반주단
- > 비디오 도움: 푸른영상

.....
푸른 영상은

이·땅·의·기·록·영·화·문·화·를·일·구·어·가·는

푸른 영상

- 젊은 기록영화가인이 모여 우리들의 참모습, 이 시대 고통과 희망의 현장을 찾아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노동, 문화, 여성, 환경, 교육 등 폭넓은 주제를 새로운 형식에 담으면서 기록영화 정신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43-5 청강빌딩 3층
전화 823-9124 팩스 823-9125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머니큰잔치 준비를 함께 하신분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중앙 집행위원회

- 남미영 (부회장, 준비위원장)
- 서정은 (문화홍보간사)
- 김선자 (북부지역 준비위원, 동근나라 어린이방)
- 유필녀 (동부지역, 개나리동산 어린이집)
- 민병은 (중부지역, 또래 놀이방)
- 조항미 (북천지역, 봉천동 애기방)
- 황미혜 (구로지역, 구로어린이집)
- 심선경 (안산지역, 꿈나무 어린이네 어린이집)
- 김경인 (부천지역, 아이사랑 어린이집)
- 곽삼화 (성남지역, 하늘어린이집)
- 조선경 (인천지역,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 이기원 (수원지역, 옹기종기 놀이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

= 서울경인지역 탁아소 자연활동가 연대회의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놀이방'
- 국민대학교 총여생회 탁아분과 '꼬마사랑'
- 건국대학교 총여학생회 '굴렁쇠'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키드키드'
- 숭실대학교 탁아 동아리 '어린이사랑회'
- 서강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애드리랑'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꼬마라기'
- 연세대학교 총여 탁아분과 '애또래'
- 중앙대학교 탁아동아리 '사랑터'
- 홍익대학교 동아리 P.A.P.A
- 한성대학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 충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각 지역의 자원활동가 선생님

=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여러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란 어떤 곳일까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기혼 여성들 취업과 그로 인한 방치 아동들을 보호, 교육하기 위하여 각 빈민, 공단 지역에 탁아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탁아소들은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기층 기혼 여성들과 희망과 의욕에 찬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아동들의 문제가 각 가정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탁아소들이 전국에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탁아소들이 좀 더 활발하고 내용성 있는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개별 탁아소를 회원으로 하여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개별 탁아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와 일하는 기층 기혼 여성들의 주체적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아동교육과 부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 경력 교사들의 교육과 회보발간, 자료집 발간 및 어머니 큰잔치, 노래 공연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탁아법의 제정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과 연구 사업 그리고 공청회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땅의 모든 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작은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탁아소들의 뜻을 모아 함께 모인 저희 연합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아울러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한 탁아소에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밖에 장난감, 동화책, 아동복 등 무엇이든지 후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은행구좌:	상업은행	449-08-015088	최현숙
	외환은행	217-19--8622-2	최현숙
	국민은행	004-24-0313-199	최현숙

◎ 자료회원 구좌: 국민은행 068-21-0479-941 정희연

푸른 영상

제6회 일하는 어머니큰잔치 자료집

발행인: 최현숙

발행일: 1993.10.16

발행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전화) 275-8505~6
